

수능 국어 학습 ~ 접근 ~~

이제 2015학년도 대입(大入) 수능은 1년여의 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환경과 눈높이가 각기 다채롭고 ~
그동안 무엇을 ~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모르는 가운데 ~
조언(助言)을 덧붙이기에 ~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
그럼, 다양한 현장 경험에 비추어 ~ 몇 가지 첨언(添言)하겠습니다 ~~

국어 교과목은 자국의 언어를 통하여 ~ 삶의 영역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
인간 삶의 본질을 배우고 ~ 장차 사회인으로서의 현실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기반을
키워가는 학문적 영역입니다 ~ 일반 사람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올해(2014학년)부터 선택 시행하는 응시 유형으로 본다면 ~
B형은 기존의 통합교과형의 수능 시험과 큰 흐름이 같이 갈 것으로 보이지만 ~
A형의 경우는 기초지식 함양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2013.11.07. 시행)도 예상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더하여 ~ 대학인들이 한자와 우리말 어법에 대한 학습이 미진(未盡)한데 따라 ~
이에 대한 문제 출제가 고정화된 점 등이 바뀐 수능 국어의 경향입니다 ~
지나온 시간 ~ 기본적인 국어 공부의 기초적인 학습 점검은 ~
제가 네이버에 올린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

기출(수능)을 영순위에 두시고, 기출 수능 공부에 들어가세요 ~
본 수능 기출 문제도 21년간 22회분이 있습니다 ~
영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 국어의 경우 ~ 1997년 수능 부터 공부해 가세요 ~~
처음엔 기본 풀이로 시작하여 ~ 점차 작품 전체로 확대하시고 ~
기출 작가의 미출제 작품까지 넓혀가며 ~ 즐공하신다면 ~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
ebs 교재 연계와 관련하여 2010년 수능이후의 기출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글썬요 ~ -_-

기출 공부가 자리 잡으신 다음에는 ~

2014년에 새로 출시(出市)되는 ~ ebs 교재 ~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중심으로 → (+) 인터넷 수능, N제 (270제) ~~ 의

총체적 학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

(ebs 연계 교재 공부는 선택사항으로 여겨 주세요 ~)

수능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자격시험화’ 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작품의 극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 소설의 '절정' 부분이 교재에 수록되었을 때,
실제 본 수능에서는 '전개'나 '위기'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

최근 수능 출제와 연계 한다, ~ 된다고 하여 ebs 교재가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은 물론 학원가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ebs 교재를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4차원에서 온 이방인으로 취급됩니다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율이 몇 %라고 분석하는 강사나 선생님들이 스타가 되곤 합니다
그럼 현실을 돌아볼까요?

대중이(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것은 더이상 (고급) 정보가 아니 듯이 ~

모두가 ebs 교재를 공부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변별력을 측정하는
시험 출제 대상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더하여 ~ 최근 몇 년 전부터 ~ ebs 물결이 대세입니다만 ~
수능 국어의 경우 ~ ebs 연계율은 ~ 발표와 체감 사이에 ~ 괴리(乖離)가 있습니다 ~

기출 수능이나 ebs 교재를 공부하신다면 ~

작품의 총체적인 이해나 감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항상 기출(수능)을 영순위에 두시고, 모의고사는 연습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
아쉬움이 적게 남으실 것입니다 ~
출제자의 위상이나 문제의 난이도, 작품의 선정 등 여러 면에서
모의고사는 일반 교재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본수능 까지 ~ 여러 모의고사를 치르시겠지만 ~
그 때 그 때의 (오르내리는) 결과에 예민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

2015학년도 수능 ~ 인강과 개념 (정리) 교재 ~~

가르침의 현장은 매우 다양합니다 ~

1 : 1의 맞춤 수업도 ~ 밀당(?)의 연속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가르치는 이의 오랜 경험에 따른 ~ 절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가 ~

배우는 이의 선호(選好)에 맞춰 ~ 궁금증 해소와 오답 풀이 위주로 나갈 것인가 ~

시각(視角)에 따라 (학습) 방향이 달라지고 ~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

그러는 사이에 ~ 시간은 흐르고 ~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

하물며 ~ 둘 이상이 배우는 경우는 ~ 더 많은 아쉬움의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

개념을 (배운다) ~ 마스터한다 ~ 정리한다 ~

이런 (과장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는 피하던 이야기였습니다 ~

상업적 물결에 따른 결과물로 보고 싶습니다 ~

하나나 둘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 여러 아쉬움이 자리하는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강인 경우는 따로 설명하지 않기로 합니다 ~

참고로 ~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출범하였던 ~ ebs의 경우 ~

1990년대 ~ 한 때는 폐지(폐쇄)의 물결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

대중적인 흐름에 따른 ~ 최고의 개념 교재나 인강을 찾기 보다는 ~

기본에 충실한 학습방향을 지켜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훌륭한(?) 개념 교재를 선정하여 공부하고 싶으시면 ~ (발품을 팔아 ~)

가까운 대형 서점을 찾아 ~ 여러 시간 ~ 여러 교재를 훑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더하여 ~ (국어) A형과 B형 선택 수능 응시 부분입니다 ~

이번 2014학년도 수능에서 ~ 처음으로 국어와 영어가 선택 시행되었습니다만 ~

내년부터 영어는 통합으로 방향이 잡히고 ~

국어의 경우는 입학성적에 따른 대학 서열(?)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최)상위권 대학은 B형을 ~ 중하위권 대학은 A형을 택하게 되리라 봅니다 ~

문과와 이과에 따른 A형, B형 선택 응시의 흐름은 아닐 것으로 짐작됩니다 ~

일종의 1년 해프닝에 따른 원상복귀의 길이라고 할까요? ~~

최종 결정은 ~ 2014년 5월까지 ~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답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기쁜 시간 ~ 즐공하시고, 승승장구 하세요 ~ ^o^

ebs 연계(변형) 교재 공부에 조언을 덧붙입니다 ~ ^o^

안녕하세요 ~ 성적에 대한 고민과 갈증을 풀어주는 ~ '공부친구(0979mentor)' 선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ebs 연계(변형) 교재와 관련하여 열풍(熱風)이 불니다.

이에 부족한 선생으로서, 연민(憐憫)의 마음으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수능이 가까워 질수록 입시생이나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긴장의 누적과 함께 '팔랑귀'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겁니다.
그럼 수능 (마무리) 학습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먼저, **수능 기출** 공부에 이어,

ebs 기본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 인터넷 수능, 고득점 N제)

4가지에 대한 학습이 고려(考慮)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스스로 부끄러움이 새록새록 묻어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사각(死角)지대를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ebs는 출발하였고, 90년대 한 때는 폐기의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능 출제와 연계 한다, ~ 된다고 하여 ebs 교재가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은 물론 학원가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ebs 교재를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4차원에서 온 이방인으로 취급됩니다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율이 몇 %라고 분석하는 강사나 선생님들이 스타가 되곤 합니다

그럼 현실을 돌아볼까요?

대중이(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것은 더이상 (고급) 정보가 아니 듯이 ~

모두가 ebs 교재를 공부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변별력을 측정하는

시험 출제 대상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더하여 ~ 최근 몇 년 전부터 ~ ebs 물결이 대세입니다만 ~

수능 국어의 경우 ~ ebs 연계율은 ~ 발표와 체감 사이에 ~ 괴리(乖離)가 있습니다 ~

지난 시간 학교에서 배우는 검인정 문학 교과서는 (총 선정 대상이) 18종이었고

지난 2012년부터는 14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외형적인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내용상 1990년대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그동안 꺼려왔던) 최신작인 2000년대 작품이 몇 가지 수록되었다는 점 등이
특이한(?) 정도입니다

문학 교과서 처럼 ebs 교재도 20여종에 달합니다 ~

ebs 연계(변형) 교재도 가지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모든 문학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빠짐없이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극히 적었던 것처럼,
ebs 교재를 모두 공부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학생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하여 ~ 2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능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자격시험화' 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작품의 극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의 '절정' 부분이 교재나 교과서에 수록되었을 때,
실제 본 수능에서는 '전개'나 '위기'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여러 종의 교재에 수록된 수천여 작품을 총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중요한 일부(1~2백개) 작품만이라도 포괄적으로 공부하는지요?

현실은 상업적 광고의 흐름일 뿐, 그렇게 학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일 수천 여 작품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굳이 ebs 교재가 아니더라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ebs 연계 교재 집필에 (잠시) 참여했습니다만,

교재의 편집방향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해와 감상과는 동떨어졌습니다

ebs 교재 지문을 이용한 수정 문제 제작이나 짜집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출제 될 때를 대비한

전체적인 설명과 이를 묻는 확인문제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연계 교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ebs 교재나 ebs 연계 교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 나세요

또 ebs 교재나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신다면,

작품의 총체적인 이해나 감상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새로운 것을 학습하시기 보다는

지난 시간에 공부해왔던 내용을 복습하시는 것이

아쉬움이 적게 남는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무리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웃음과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승승장구하시고, 올해에 꼭 ~ 바라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세요 ^o^

2015학년도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에 ~

공부친구 선생이 전합니다